

해외비교시찰 결과 보고서

(태국: 방콕, 파타야)

- ◆ 시찰기간: 2012. 10. 22. ~ 2012. 10. 27.(5박6일)
- ◆ 방 문 국: 태국
- ◆ 연 수 자: 성동구의회 의장 윤종욱 외 11명



성 동 구 의 회

■ 연수개요

- 연수지역 - 태국(방콕, 파타야)
- 여행기간 - 2012. 10. 22.(월) ~ 10. 27.(토)
- 연수자명단

연 번	직 위	성 명	비 고
1	의 장	윤 종 욱	
2	부의장	김 화 목	
3	의회운영위원장	박 경 준	
4	행정재무위원장	전 계 석	
5	복지건설위원장	김 종 곤	
6	복지건설위원	윤 순 영	
7	복지건설위원	임 종 기	
8	의회사무국장	진 복 수	
9	전문위원	이 춘 근	
10	주무관	문 철 수	
11	주무관	이 영 우	
12	주무관	나 명 식	

○ 연수목적

- 최근 정치적 불안 등에도 불구하고 자연자원이 풍부한 나라의 특성을 부각시켜 관광산업을 꾸준히 개발하는 태국을 비교 시찰함으로써
- 세계의 경제·사회·문화 등이 하나가 되는 글로벌시대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의정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

○ 연수 주요일정

일 짜	주요일정(2012.10.22. ~ 10.27.)
태국 도착 (10/22,월)	태국(방콕) 도착
제1일 (10/23,화)	방라몽 노인요양원 방문, 아유타야 방과인 별궁 답사
제2일 (10/24,수)	과인애플 농장 답사
제3일 (10/25,목)	과타야시 의회 방문
제4일 (10/26,금)	짜오프라야 강 답사
인천공항 도착 (10/27,토)	인천공항 도착

■ 태국 현황

- 수 도: 방콕
- 면 적: 513,120km²
- 인 구: 약 6천 7백만명
- 종 교: 불교 94.6%, 이슬람교 4.6%
- 기 후: 열대몬수기후로 강수량이 비교적 많은편
- 언 어: 태국어
- 종족구성: 태국인 74%, 중국인 15%
- 통 화: 바트(baht)
- 특 징: 동남아시아 국가 중 유일한 비식민지 국가

1. 미소의 나라 태국

아시아의 동남아에 위치하고 있는 태국은 불교의 나라로서 인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세기동안 외국인들에게 사이암으로 잘 알려져 왔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지리적, 문화적, 종교적 교차로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51만 평방Km의 크기는 한반도의 2.3배 정도이며 프랑스와 크기가 비슷하다. 서쪽과 북쪽으로는 미얀마, 북동쪽으로는 라오스, 동쪽으로는 캄보디아 그리고 남쪽으로는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이루고 있다.

태국을 미소의 나라라고 한다. 태국은 세 개의 계절로 나누어진 열대 기후 나라이다. 3월부터 5월까지의 덥고 건조한 날씨로 평균 기온은 34도 정도까지 올라가는 매우 더운 계절이다. 6월에서 10월까지의 평균 29도 정도의 날씨로 우기에 해당한다고 한다. 지금 태국은 우기가 막 끝나는 시기이며, 30도 이상까지 올라갈 정도로 무더운 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30도 이상까지 올라가는 여름에는 불쾌지수도 상승하여 범죄율도 상승한다고 한다. 굳이 범죄율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땀으로 범벅이 되는 무더운 날씨가 사람의 기분을 상쾌하게 할리는 없지만 태국의 현지인들은 낙천적인 성격 때문인지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것이 특성이다. 이러한 태국의 국민성은 태국을 세계적인 관광국으로 입지를 굳히게 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이 틀림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개개인의 특성은 조직의 특성이 되며 나아가 조직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경제, 교육, 주거환경 등 좋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는 본인을 포함한 개개인 모두의 마음이 짐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며 이번 비교시찰이 작은 변화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II. 태국에서의 비교시찰

1. 제1일(10월 23일, 화)

아유타야 방파인 별궁(태국왕의 여름별장)

전날 오후 늦게 방콕에 도착한 우리는 호텔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다음날 아침 방콕에서 북쪽으로 약 60km 떨어져 있는 아유타야 방파인



별궁을 답사하였다. 1769년 아유타야가 미얀마와의 전쟁에서 패해 왕조가 멸망하자 폐허로 변했던 것을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한건 라마 4세와 5세 때라고 하며 아유타야시대 왕들이

< 방파인별궁을 대표하는 프라티낭 > 여름에 별장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여름궁전’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태국과 중국의 전통적 건축양식과 이태리, 그리스 고대 건축양식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 었다.

방라몽 노인요양원 방문

우리가 방라몽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원장님과 관련 직원들은 우리를 환한 미소와 함께 반갑게 맞아 주셨다. 직원들의 진심어린 환대를 받으니 이렇게 따뜻한 마음의 직원들 보호아래서라면 어르신들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으리라 짐작할 수 있었다.



요양원 직원들과 간단하게 인사를 마친 후 어르신들을 보기 위해 안쪽으로 이동했다. 어르신들은 때마침 식사를 하는 중이었고 우리의 방문이 괜히 식사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죄송스런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함께 < 어르신들의 식사모습 > 하지 못했지만 눈빛으로나마 잘 지내고 있다는 대답을 받아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다.

태국에는 약 20여개의 노인요양원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복지시스템이 뒤떨어져 있을 것이라는 고정관념과는 달리 어르신들의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른 매뉴얼을 가지고 체계적인 케어를 실시하고 있었다.

방라몽 노인요양원에는 총 4개의동이 있으며 약 240여명의 노인들이 계시다고 한다.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60세가 넘어야 하며 비용은 정부에서 모두 지원해 주기 때문에 무료이다. 요양원의 시설은 썩 좋아 보이지 않았지만 자연과 어우러져 있는 요양원의 전경을 보니 어르신들이 지내기에는 더 없이 좋아보였다.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히 진행되는 노령화와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의 변화로 노인요양시설의 수요 또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성동구에도 시립 노인요양시설을 포함 6개의 노인요양시설이 있는데 나무숲이 아닌 빌딩 숲속에서 지내시는 어르신들을 생각하니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여건이 된다면 우리도 방라몽 노인요양원과 같이 쾌적한 환경의 요양원을 가져 보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다.



〈방라둥 요양원 앞에서〉

2. 제2일(10월 24일, 수)

태국의 파인애플 농장

태국의 가장 큰 국가수입은 관광수입이지만 전통적으로 농업 중심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태국 수출의 60%이상은 농산물이며 그 중 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 쌀 외에 파인애플, 코코넛, 설탕 등을 주로 수출한다.

파인애플의 경우 대부분의 농장에서는 회전식 경작을 하고 있어서 연중 계속 수확을 한다. 80%정도의 파인애플은 Dole Thailand공장으로 납품하여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내수용으로 판매한다고 한다.



< 태국에는 열대지방인 만큼 과일이 풍부하다. 그중 1년 내내 가장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은 파인애플이다, 파인애플 농장 사진 >

파타야 야시장을 다녀오다...

파인애플 농장을 둘러보고 늦은 점심식사를 마친 후 파타야의 야시장으로 향했다. 파타야의 야시장은 공터 같은 곳에 좌판을 깔아 놓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성동 무지개 나눔장터’와 비슷해 보였다.

야시장은 매일 열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의 3일장, 5일장처럼 일주일에 2,3번 열린다고 한다. 생필품부터 먹을거리까지 꽤 여러 종류의 상품들을 팔고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붐벼서 그런지 최근 대형슈퍼마켓들이 시장을 잠식하여 한산해져 버린 우리의 재래시장과는 대조적이었다. 최근 우리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파타야 야시장〉

대책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활기를 되찾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성동구 재래시장들도 파타야의 야시장처럼 사람들로 붐비는 날이 오길 기대하며 재래시장 활성화대책마

련에 더욱 힘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태국의 택시 일명 '툽툽이'

태국의 대중교통 수단의 하나로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개조하여 만든 택시이다. 툽툽이는 교통 체증이 심한 러시아워시간에 기동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태국에서 흔히볼 수 있는 태국의 명물로 관광객이 많이 이용한다고 한다. 성동구에도 성동구하면 떠오르는 독특한 교통수단을 개발해 보면 어떨까...

3. 제3일(10월 25일, 목)

파타야시 의회 방문

비교시찰 일정도 중반을 넘어서 이제 2일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가 3일째 방문한 곳은 파타야시 의회였다. 의회건물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며 회의실 앞에 이르자 파타야시 의장을 포함한 의원들이 우리를 마중 나와 있었다. 서로 인사를 마친 후 간담회를 위하여 회의실 안으로 이동하였다.

간담회는 파타야시 의장의 파타야에 대한 소개와 함께 시작되었다. 예전의 파타야는 조용하고 한적한 어촌으로서 가끔 왕족들이 내려와 오늘날의 요트와 비슷한 전통 뱃놀이를 즐기던 곳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나콘 라차시마'라는 곳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들이 파타야에 휴가차 방문하였으며, 이들이 다녀간 이후 미군들이 파타야의 남쪽 해안에 있던 방갈로를 장기 임대해 정기적인 휴양지로 이용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서서히 파타야는 초현대적 관광지로 변모하였고, 급기야 1978년도에는

특수관광자치도시로 지정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한다.



의장님 반갑습니다



< 간담회 모습 >

현재 파타야에는 연간 100만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하루 유동인구만도 3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관광객 중 대한민국이 러시아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이 이곳을 찾는다고 설명해 주었다.

파타야에 대한 소개가 끝나고 홍보영상을 본 후 파타야시에 관한 우리 의원들의 질문 시간이 이어졌다. 다음은 의원들의 질의 사항과 답변 사항에 대하여 요약해 보았다.

※ 파타야 시의회 의원과의 간담회 질의응답 요약

연 번	질의 사항	답변 사항
1	건축물 건설이나 관광지 개발 등은 어떻게 결정하는지?	대부분의 정책결정은 공청회를 통해 시의원들이 결정함
2	낙후된 건물이 눈에 많이 띄는데 이에 대한 파타야시의 지원은?	특별한 지원 혜택은 없음
3	의원의 임기는?	4년
4	전체의원 수와 여성의원의 비중은?	24명의 의원이 있으며 그 중 여성의원은 3명임
5	파타야시의 1년 관광 수입은?	약 1000억원

우리는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간담회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 아쉽지만 질문시간을 마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파타야에서는 지상철 건설이나 건축물 건설 계획이 많으니 한국과 좋은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자고 우리 의원이 건의를 하자, 태국이 한국전쟁 때 참전했던 예를 들며, 한국은 형제와 같은 나라이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파타야시 의장이 화답해 주었다. 덧붙여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파타야를 찾는 만큼 보안이나 편의시설 등에 더욱 신경 써 파타야를 세계 제일의 관광지로 발돋움 시키겠다고 강조하여 말했다.



< 의회 본회의장 >



< 파타야시 의회 앞에서 >

4. 제4일(10월 26일, 금)

태국이 한강 ‘짜오프라야 강’

3일 동안 파타야에 머문 우리는 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보내기 위해 방콕으로 이동하였다. 태국에서의 마지막 방문지는 태국의 수도 방콕을 가로지르고 있는 짜오프라야 강이다. 짜오프라야 강은 타이 방콕을 가로 질러 흐르는 타이에서 가장 큰 강이다. 북부 산지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365km 이상을 흘러 방콕을 통과하여 타이 만으로 흘러들어 간다.

짜오프라야 강물은 몹시 혼탁해 보였지만 이는 바닥이 빨로 되어 있어서 그렇기 때문이다. 수상보트에 올라타 가까이에서 보니 물은 더욱 혼탁해보였지만 보기와는 달리 2급수 정도에 해당하는 깨끗한 물이고 수상가옥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강물에서 머리도감고 빨래도한다고 한다. 태국 정부에서는 물을 정수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수상식물을 심어 정화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배를 타고 강의 중심으로 이동하니 메기과에 속해 보이는 물고기들이 득실거렸다. 낚시를 하는 사람도 간혹 눈에 띄었지만 불교를 숭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인지 물고기를 잡아가지는 않

고 다시 방생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짜오프라야 강의 물고기 >

짜오프라야 강은 태국의 수도 방콕을 가로지른다는 점에서는 한강을 닮았지만 강을 따라 쪽 늘어서있는 수상가옥의 모습은 50, 60년대 서울의 청계천을 떠오르게 했다. 하지만 태국의 수상가옥은 관광자원의 일부로써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청계천



처 < 수상가옥 >

럼 정비되어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성동구의 청계천도 하루 빨리 개선하여 상류의 청계천처럼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III. 비교시찰을 마치며

지나고 나면 모두가 그렇듯 5박6일 동안의 짧은 일정 속에서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나름 알찬 비교시찰이 되었다. 특히 파타야를 세계제일의

관광지로 발돋움시키겠다는 시의원의 열정과 파타야시에 대한 자부심은 우리도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 하지만 과거의 역사를 반성하고 오늘의 현실에 반영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한다. 그동안 우리는 경제개발 등 외적인 면에 많은 공을 들이며 눈부신 발전을 했다. 이제는 한숨을 돌리고 방라몽 노인요양원과 같이 자연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사람중심의 성동을 가꾸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번 비교시찰에서 습득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태국민들의 미소처럼 성동구민의 얼굴에도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도록 ‘행복한 성동’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태국은 국민의 95%이상이 불교이다. 그러므로 건축양식 또한 불교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태국에서 일반 가옥만큼이나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사원과 불상이다. 태국에는 약 3만 개 이상의 사원이 있다. 이름 앞에 랏, 라차, 마하, 프라 등의 명칭이 붙은 사원은 왕이 세웠거나 귀중한 보물이 보관된 곳으로, 이러한 사원은 전국에 약 180개 정도가 있다.



< 새벽사원 >



< 일렬로 줄 서있는 불상이 인상적이다 >

